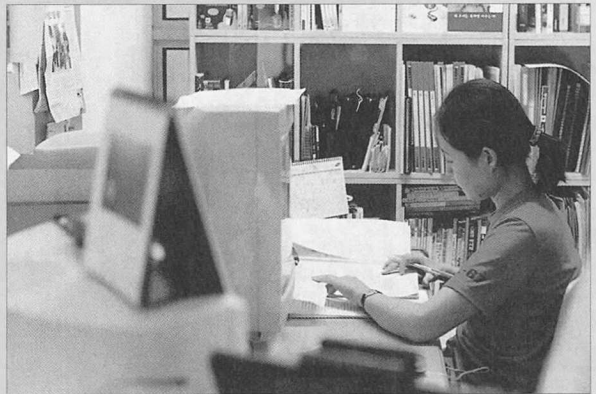


한국출판의 아방가르드 '1인 출판'

이창경 | 신구대학 출판미디어과 교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전문분야의 콘텐츠 개발과 전문도서 간행이 출판계에 요구되고 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출판 형태가 1인 출판이다. 전문화·세분화·차별화가 1인 출판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자부심과 긍지가 1인 출판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라면, 제도적 장치는 1인출판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정책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다.



1인 출판은 종합출판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공략으로 주제의 일관성과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진은 한 1인 출판사 사무실.

한국 근대출판의 주류는 1인 출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판인들은 출판을 소비상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식과 문화의 전파매체로 인식했다. 그만큼 지식과 문화를 창조, 전파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강했다. 출판의 근원적 특성에 충실한 이런 시각은 지식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출판이 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전통적 관념에 변화가 일어났다. 효율성을 지향하는 기업구조와 함께 대형화가 추진됐다. 간행한 책의 내용이나 가치보다 연간 매출액이 출판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 출판은 영세업종이란 꼬리표도 달게 됐다.

책과의 유대감과 아이디어 생산능력

출판의 본질에 천착한다면 대기업이 성공하고, 소규모 출판사가 발붙이기 어렵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출판도 생산업이기 때문에 자금과 인적 구성, 마케팅전략, 소비시장의 확보 등 기본조건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 선행하는 것은 책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다. 짜릿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과의 유대감과 기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 생산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화와 지식체계를 포괄하는 출판영역에 다양한 빛깔의 출판사가 포진해 있을 때 출판의 토양은 기름질 수 있다.

2천년 전반기 출판사 총수는 1만5천여개에 이른다. 신규 641, 폐업 631, 거의 비슷한 수의 출판

사가 금년 상반기 동안 생겨나고 사라졌다. 지난해 한해 동안에는 1,563곳이 문을 열었다. 하루에 4개 이상의 출판사가 새로 생겨난 것이다. 출판사별 평균 발행종수는 1~5종이 가장 많은 64%를 차지하고 있다. 1982년에는 1~5종을 출간한 출판사가 43.5%에 이르기도 했다. 이는 소규모 출판사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출판사가 늘어남에도 1~5종이라도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가 줄어든 것은 '무실적' 출판사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무실적 출판사는 1982년에 15.61%를 최저로 1999년에는 86.9%로 늘었다.

몇 종 안되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는 유명무실한 출판사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이중에는 분명 소규모이긴 하지만 본격적 전문출판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독자는 다양화되고 특화된 내용의 책을 요구하고 있다. 가벼운 읽을거리나 정보도서 중심의 출판경향에서 벗어나 강한 지적 욕구 충족을 원하는 소수의 독자도 존재한다.

전문적 콘텐츠 개발과 전문서 간행이 핵심

이런 지적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전문도서 출판은 1인 출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1인 출판의 특성을 전문화·세분화·차별화에 둔다면, 종합출판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공략으로 간행서적의 주제적 일관성과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세분화된 도서출판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서

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출판에 대한 매력이 1인 출판을 가능케 하지만 사회적 환경과 출판여건의 변화, 제도적 장치는 활성화에 기여한다. 1인 출판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홍보와 유통부문이다. 제작 관련 전문회사 출현, 배분회사의 등장, 언론의 홍보지면 확대 등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터넷 서점의 등장과 다양한 서지정보 제공으로 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서점의 홀대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했다.

정책적 지원 또한 중요한 문제다. 정평 있는 시상제도의 확대, 양서출판에 대한 과감한 지원, 지속적인 독서운동 전개 등 출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출판분야 지원도 사회운동으로 확산돼야 한다. 공연예술이나 창작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투자의 차원에서 출판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콘텐츠 개발과 전문도서 간행은 정보화시대 출판분야의 핵심과제다. 1인 출판의 방향과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사결정의 신속성, 내용의 전문성, 편집의 개성 등 1인 출판의 장점이 독자들의 지적 욕구와 강하게 부딪쳐 만들어내는 지식의 향연은 분명 출판의 큰 매력임에 틀림없다. 그 매력이 1인 출판의 존재가치다. ●